

#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 전제로 공동의대 설립 바람직”

전남 국립의과대학  
반드시 설립해야

## 〈3〉 경쟁보다 상생·협력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한 전남도의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대·순천대가 대학 통합을 전제로 공동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실리고 있다. 지역 간 경쟁보다는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길 수 있는 ‘대학 통합’을 계기로 전남 30년 숙원 해결을 전남도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1광역단체 1국립대’를 권장하고 있으며, 대학을 통합할 경우 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함께 국비를 더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용역기관인 전남 국립 의대 설립방식선정위원회가 ‘1개 대학·2개 대학병원’을 1안으로 하되 ‘공동의대·2개 대학병원’이라는 2안 역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와 지역정치권은 1안보다는 오히려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설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양상이다. 당초 공동의대 방안은 전남도가 추진했었으나 순천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순천대가 용역기관(에이티커니 코리아·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대학 내에서 개최하고, 대학 내 공동의대 논의는 계속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기에 순천대는 2023년, 목포대는 올해 각각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되며 미래 경쟁력을 갖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데다 각각 그린스마트팜·첨단소재와 친환경생약·해양에너지 등으로 특성화되어 있어 통합할 경우 구조조정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학원연구 감소, 지역 소멸 등의 대안으로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

의대 병원 설립에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는데, 정부로부터 통 큰 지원을 얻어낼 가능성도 높아진다. 1000병상 병원을 설립할 경우 7000억원 이상

도민 30년 숙원 ‘화합의 장’으로 정부 ‘1광역단체 1국립대’ 권장 대학 통합 전 의대 설립 명분 쌓여 국비 확보 실리까지 챙길 수 있어 정부 전폭적인 지지도 가능할 듯

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국비는 최대 25%, 전남도가 병원 설립 비용의 30%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지원을 받더라도 목포대와 순천대가 35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남도는 2개 대학 병원 신설로 커지는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후 추가 지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학을 통합할 경우 정부가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신축 당시 국비 7000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전남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립이 전남 일부 지역의 성공과 실패로 귀결되기보다는 전남 전체의 상생과 화합, 대학의 더 밝은 미래로 이어져야 한다는 도민의 바람이 크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대학 통합을 전제로 순천대와 목포대가 절반씩 공동의대를 정부에 제해 전남 신설 의대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의정협의체에서도 통합 대학의 의대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학 통합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더 큰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각 대학이 대학 통합에 보다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논의가 잘되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공모를 계속 추진하면서 11월 초 정부에 의대 설립 대학을 추천하기 전까지 대학 통합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정부에도 통합 대학 공동의대 설립 방안을 충분히 사전 설명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9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록 전남지사,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을 비롯 박군택·정준호 의원과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L평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군공항특별법 보완·무안군 지원 방안 마련 공감

민주당 광주 의원·전남도 간담회  
입장차 커 시간 두고 신뢰 쌓아야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전남도청에서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남도가 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중대 현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조정·중재 역할에 나선 것으로, 처음으로 광주 국회의원과 전남도 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졌는데 우선 성과가 있었다. 다만 여전히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간극이 큰 만큼 시간을 두고 상호 신뢰를 우선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광주군공항특별법의 문제점 보완, 무안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모두 공감했다.

19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는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박군택·정준호 의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인사발에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6일 광주시와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남도에 재확인하고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부대양어 방식 등 군공항특별법 ▲이전후보지에 대한 재정 지원 ▲민간공항 이전 등 논의 안건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됐다. 먼저 전남도는 군공항특별법과 관련 기부대양어 방식도 문제지만, 군공항이 이전할 대상지에 대한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 등 지원 대책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군택 의원은 “광주군공항특별법이 대구공항특별법과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상당하다”며 “대구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사업 주체로 돼 있으며,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예비후보지 지정 이전이라도 종전 부지 개발과 이전 부지 지원 플랜이 필요하고, 특히 이전대상 부지 지원 규정은 특별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당사 준비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양부남 위원장은 특별법 보완에 뜻을 같이 했고, 기부대양어 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가 주도 방식의 공항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전후보지에 대한 광주시의 1조원 지원과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1조원이라는 재정 지원과 함께 국책사업에 대한 광주의 지원이나 포괄적 약속 등 무안군민들에게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 민간공항의 선 이전과 관련 김 지사는 “무안군민의 마음을 열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며, 예비 후보지가 지정되면 민간공항을 모두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수원공항 사례를 들며 예비 후보지로 지정되더라도 완전 이전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예비후보지 선정 연말 데드라인’에 대해서 광주시는 올 연말을,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노력해보자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국제공항은 전남만의 시설이 아니며 광주·전남의 공동 이익이라는 큰 숲을 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공항 문제 해결의 주 당사자로서 책임의식과 진정성을 갖고 무안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제시한다면 전남도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미국, 금리 4.75~5.0%로...0.5%p 인하 ‘빅컷’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4년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8면>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에 2.00% 포인트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준은 또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는 연내에 0.5% 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더 좋은 내일  
2024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2024. 9. 27.(금) 14:00 ~ 17:00  
광양공설운동장실내체육관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695-20]

홈페이지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job.jeonnam.go.kr  
문의 전남일자리종합센터 061-750-7700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전남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보훈청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